여자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 슬 기(중앙대학교)

I. 서 론

알코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대부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거나 몰성적인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음주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달한 외국에서도 여성을 독자적인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불과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여성이 음주문제와 관련 요인에 있어 남성과 다르다는 것을 지목하고 있다(NIAAA, 1990, 2005).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음주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여성의 지위와 여성성을 강조해왔던 우리 문화에서 여성의 음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에서 여성음주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2006. 4.12. KBS 2TV 추적60분; 조선일보 2005.7.4).

음주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남성에게 미치는 그것과 다른데, 같은 양의 알코올을 소비했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강한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며, 따라서 신체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NIAAA, 2003). 얼마 전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여성음주문제에 대한 보도 및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결과는 여성의 음주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음주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낙인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전국 표본을 사용하여 여성의 알코올소비량, 음주행태, 음주문제의 정도 등을 파악하는 역학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알코올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편의표집에 의존하여 여성전체에게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거나, 음주와 관련있는 한 가지의 요인만을 탐색하는 연구로 보다 종합적으로 여성음주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나 예방적 개입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연구의 영역이나 깊이 등에서 여성음주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알코올에 대한 연구는 크게 전개입 연구(preintervention research)와 개입연구(intervention research)로 나눌 수 있는데, 전개입 연구는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여성음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이고, 개입연구는 말 그대로 치료개입이나 예방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효과성 또는 반응의 차이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Martin & Howard, 1996). 이 두 가지의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하지만 여성을 특성화하는 음주연구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전개입 연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성별을 단순한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로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을 주요한 변수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음주와 관련된 개인, 인지, 환경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문제예방 프로그램이나 개입, 치료 연구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음주가 본격적이고 합법적으로 시작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성과 구별되는 음주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여성 음주관련 선행연구

음주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달한 서구에서도 여성을 특성화시킨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국내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알코올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연구 대상을 막론하고 음주연구에서 필수적인 것은 기초적인 역학조사인데, 한국여성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여 우리의 여성음주에 대한 지식은 아직 초보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중 여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을 받는 요인으로는 과거 경험, 우울증을 들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거의 경험 자체가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다. 특히 아동기나 성장기에 성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여성은 이후에 음주문제를 가지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술을 마시는 남성이나 일반인에 비교하여 여성 음주자들이 어린 시절학대 경험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Redgrave et al., 2003; Simpson & Miller, 2002). 특히 알코

올치료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성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Rice et al., 2001). 둘째, 나이와 관계없이 여성의 문제성 음주는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eckman, 1980, Hesselbrock et al., 1985; 김옥수 외 2001).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알코올연구에서 과거의 스트레스 생활사 경험이나 우울증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중 빈번히 지목되는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요인으로 음주결과기대(alcohol outcome expectancy)를 주목한다(Maisto et al., 1999; Thombs, 1999). 즉, 음주를 하게 됨으로 해서 얻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음주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음주결과기대와 음주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윤혜미 외, 1999; 김용석 외, 2001).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음주기대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음주상황 전반에 대한 기대를 일괄적으로 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음주기대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기대가 각각 다르다는 결과를 보고했고, 음주정도(적정음주, 과다음주 등)에 따른 기대가 다르며, 이 부분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Wiers et al., 1997; Thombs, 1993; George & McAfee, 1987).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지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 남성과 여성을 차별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적 요인 중 여성의 음주와 관련있는 변수로는 가족요인, 관계요인, 음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들 수 있다, 첫째, 가족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족 중 음주문제자의 존재여부, 본인이 지각하는 가족의 음주에 대한 허용도, 가족의 낮은 정서적지지 등이 개인의 음주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지목되는데, 여성에게도 이러한 변수는 남성과 유사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Donovan, 1996). 또한, 친밀한 사람의 음주행동은 여성의 음주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결과도 있다(Wilsnack, 1996; Wilsnack & Wilsnack, 1990). 또래의 음주압력과 관련한 몇몇 연구들은 또래의 음주 정도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뚜렷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했다(Schulenberg et al., 1993). 이는 청소년, 젊은 여성, 중년 여성을 막론하고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가까운 사람들의 과다음주가 특히 여성의 음주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Wilsnack et al., 1984).

Ⅲ.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광역시 중심으로 서울, 부산, 경기권, 강원원,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총 6개 지역에서 12개의 4년제 남녀공학대학을 선정하여, 할당표집방법을 통해 남녀 대학생 총 3,342명(남자 1,587, 여자 1,7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는 알코올문제 자가진단(AUDIT)을 통해 문제음주를 구분하고, 선행연구에서 문제음주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가족, 또래, 음주기대, 우울성향, 과거성장기 스트레스 유발경험 등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자료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실행되었다. 첫째, 성별을 하나의 변수로 포함시켜서 문제성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였고 이를 위해 종속변수인 문제성음주를 '예' '아니오'로 이분화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각각 두 개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실행한 뒤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남성과 여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와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자료정리와 통계분석은 SAS 9.1을 통해 이루어졌다.

Ⅳ. 연구결과

총 3,342명의 응답자 중 남자는 47.5%(1,587명), 여자는 52.5%(1,755명)였다. 서울지역 대학생이 24.2%, 부산과 충청 지역 대학생이 각각 17%, 대구, 광주, 경기, 강원, 호남 지역의 대학생들이 각각 7%에서 9%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응답자의 40.9%는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으며, 약 40%가 부모님과 함께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이었다.

1. 남성과 여성의 음주행동 비교

본 연구에 포함된 대학생들의 94%는 음주자였고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음주자의 비율은 6%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남성과 여성의 음주자 비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외국의 대학생 음주비율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술을 마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30일간의 음주빈도를 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술을 더 자주 마셨다고 보고했으며(각각 7.2회, 4.4회), 알코올 소비량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두 배 가량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남학생 39잔, 여학생 20잔-standard drink). 최근에 들어서는 10여년 전보다 대학생들이 마시는 술의 종류가 많이 다양해진 편인데, 남녀 대학생 모두 소주를 더 많이 마신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술에 취한 회수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지난 30일간 술 취한 날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월등히 높지만(남자 30%, 여자 61%), 일주일에 1회 이상

취했다고 대답한 비율 역시 여학생이 더 높다(남자 21%, 여자 27%)는 결과는, 실제로 술을 마시는 양은 여자가 적지만 취하는 정도는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절대적인 알코올 소비량으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 것은 제한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 음주로 인한 효과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준다. 알코올문제 선별검사인 AUDIT 점수로 파악한 문제음주의 비율은 남성이 66%, 여성이 37%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χ^2=289.65, p<.0001). 하지만 두 집단 모두 문제음주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생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남녀 모두 친한 친구의 80% 정도가 음주자라고 밝혀 음주가 매우 자연스럽고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음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요인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는 음주행동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음주가족력이나 우울증세는 남자와 여자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긍정적 음주기대나 부정적 음주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하지만 실제 평균점수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과거 스트레스 유발경험은 남자가 평균 1.17개의 스트레스 유발사건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으며, 여성은 1개의 사건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스트레스 유발 사건을 경험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t=3.49, p<.0001). (표 생략)

2. 남성과 여성의 문제음주(high-risk drinking) 영향요인 비교

남녀 대학생을 함께 고려하여 성별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차적으로 확인하였다. 첫째,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알코올가족력이 문제음주를 예측하지 않는 반면 남자의 음주관련 가족력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중 알코올문제를 가진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56% 증가한다(OR=1.56, p<.05). 다음으로, 우울증세는 여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의 문제음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CED-S의 점수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2%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OR=1.02, p<.01).

둘째,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과거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의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음주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스트레스 사건 경험 종류가 1가지 증가할수록 문제음주자일 가능성은 21%씩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성도 과거 스트레스 경험이 문제음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10%로써 남성의 절

반정도이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남녀 간의 차이는 부정적 음주기대의 문제음주 예측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음주에 대한 부정적 기대(즉, 공격적이 될 것이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 등)는 음주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정적 음주기대는 문제음주에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음주기대 정도가 높을수록(즉, 부정적 음주기대 점수가 1단위 증가할수록)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15% 증가하며, 이는 남성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남자의 OR=1.06). 즉, 여성의 경우 부적 음주기대가 남성에 비해 문제음주를 더 크게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과 여성의 비교

	Female					Male				
	Coefficient		Odds Ratio	Confidence Interval		Coefficient		Odds Ratio	Confidence Interval	
				Lower 95%	Upper 95%				Lower 95%	Upper 95%
학년	0.03		1.03	0.93	1.14	-0.09		0.91	0.82	1.02
알코올가족력	0.25		1.28	0.88	1.87	0.44	*	1.56	1.02	2.38
또래음주비율	0.01	***	1.01	1.008	1.02	0.02	***	1.02	1.02	1.03
우울증세	0.02	**	1.02	1.008	1.03	0.002		1.002	0.99	1.02
과거 스트레스 경험	0.10	*	1.10	1.005	1.21	0.19	***	1.21	1.10	1.32
긍정적 음주기대	0.14	***	1.15	1.12	1.18	0.13	***	1.14	1.11	1.17
부정적 음주기대	0.14	***	1.15	1.11	1.18	0.06	**	1.06	1.03	1.09
	-2LL=2210.614, model χ^2=362.9671, df=7, p<.0001					-2LL=1894.299, model χ^2=235.7075, df=7, p<.0001				

*p<.05, **p<.01, ***p<.001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높은 음주비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남녀 대학생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알코올가족력, 또래음주비율, 우울증세, 과거 스트레스 유발사건 경험, 긍정적, 부정적 음주기대가 문제음주와 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각각 분석한 결과, 알코올가족력은 남성 문제음주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문제음주 예측변수로 지목한 우울증세는 여성에게만 유의미한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알코올관련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수행할 때 놓칠 수 있는 남녀간 특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측요인들의 영향력 역시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과거 스트레스 유발 사건은 남녀 모두의 문제음주 가능성을 증가시키지만 남성의 경우 그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과거의 스트레스 유발경험은 남자 여자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갖는다. 긍정적 음주기대는 남녀 모두에게 유사한 정도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반해, 부정적 음주기대는 여성의 문제음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행동이나 역할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음주를 받아들이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문제성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와, 영향정도의 차이는 성별을 단순한 변수로 포함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남성과 여성의 음주문제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에서 우울성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지난 20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를 토대로 치료나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이미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와 있다. 국내의 여성음주관련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본 연구를 발판으로 하여, 여성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의 알코올관련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초점으로 공략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을 위한 기반마련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음주를 보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대상이 갖는 제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특정한 연령으로 연구대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일반 여성에게 일반화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시점으로 하여 향후에는 일반여성을 표본으로 하는 연구로 여성대상 음주연구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김옥수, 김계하(2001). 여대생과 직장여성들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흡연에 대한 비교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3(3), 363-372.

김용석, 김정우, 김성천(2001). 청소년 음주행위의 실태 및 변화와 관련요인들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7, 71-106.

윤혜미, 김용석, 장승옥(1999).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38, 153-179.

조선일보. 2005.7.4. 기획취재. “엄마, 술좀 그만드세요”.

KBS2TV. 2006.4.12 방영 '추적 60분'

George, W. H., & McAfee, M .P. (1987). The effects of gender and drinking experience on alcohol expectancies about self and male versus female othe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2), 133-144.

Maisto, S. A., Carey, K. B., & Bradizza, C. M. (1999). Social learning theory. In H. B.ane & K. Leon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pp.106-163)*. New York, NY: Guilford.

Martin, S. E., & Howard, J. M. (1996). Future directions for psychosocial and prevention research on women and alcohol. In J. Howard et al. (Eds.) *Women and Alcohol: Issues for Prevention Research*.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Research Monograph 32.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 of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2005). *Women and alcohol*. Social work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lcohol use disorders. Module 10B. Available at http://www.niaaa.nih.gov

National Institute of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1990). *Alcohol and Women*. Alcohol Alert No.10 PH290. Available at http://www.niaaa.nih.gov

National Institute of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2003). *Alcohol: A Women's Health Issue.*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vailable at http://www.niaaa.nih.gov

Redgrave, G. W., Swartz, K. L., & Romanoski, A. J. (2003). Alcohol misuse by women.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15*, 256-268.

Rice, C., Mohr, C. D., Del Boca, F. K., Mattson, M. E., Young, L., Brady, K., & Nickless, C. (2001). Self-reports of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abuse in an alcoholism treatment samp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 114-123.

Schulenberg, J., Dielman, T. E., & Leech, S. L. (1993). Individual versus social causes of alcohol misuse during early adolescence: A three-wave prospective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Research Society on alcoholism, San Antonio, TX, June 1993.

Simpson, T. L., & Miller, W. R. (2002). Concomitance between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and substance use problems.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27-77.

Thombs, D. L. (1999). *Introduction to Addictive Behaviors*. New York, NY: Guilford

Press.

Thombs, D. L. (1993). The differentially discriminating properties of alcohol expectancies for female and male drinke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 321-325.

Wiers, R. W., Hoogeveen, K., Sergeant, J. A., & Gunning, W. B. (1997). High- and low-dose alcohol-related expectancies and the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drinking i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ddiction, 92*(7), 871-888.

Wilsnack, S. C. (1996). Patterns and trends in women's drinking: Recent findings and some implications for prevention. In J. Howard et al. (Eds.) *Women and Alcohol: Issues for Prevention Research*.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Research Monograph 32.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ilsnack, R. W., Wilsnack, S. C., & Klassen, A. D. (1984). Women's drinking and drinking problems: patterns from a 1981 surve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4*(11), 1231-1238.